

集約化로 再生의 길을 모색하는 日本の 注油所業界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資源에너지庁 장관의 私的자문기관인 石油流通비전연구회는 지난 8월 21일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는 揮發油販賣業(注油所業)이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中間보고서를 종합·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업계 스스로가 경영의 근대화, 多角化 및 집약화로 곤경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근대화와 다각화에 관해서는 POS(販賣時點情報管理) 등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 정보기술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집약화에 관해서는 事業의 轉換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注油所의 數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나친 廣告의 증지등 다섯 가지 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公正競争률의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庁은 중간보고서를 접수, 우선 공정경쟁률의 구체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同연구회는 石油業界 전체의 效率化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注油所業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를 해 왔었는데, 同업계의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최종보고서는 연말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간보고서는 전국의 약 5만9천개소의 注油所의 약 半數가 적자경영에 빠져 있다고 지적, 현재도 과당경쟁이 진행중인 同業界의 構造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업계 스스로가 근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POS시스템의 도입을 증대, 會計處理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크레딧카드에 의한 販賣代金を 회수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提言하고 있다.

歐美에서 보급하고 있는 셀프 서어비스의 도입에 관해서는, 日本에서는 消費者가 注油所 점원이 서어비스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근대화와 多角化를 위해서는 注油所에 대한 防災上의 規制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消防庁에 대하여 소방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

재 注油스탠드 내에는 給油에 필요한 사람만이 출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탠드에서는 일반상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多角化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公正競争률의 확립은 構造개선과 함께 업계의 과당경쟁방지책으로서 요청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具體적으로는 ① 事後調整(元売会社가 注油所業界에 판매한 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 ② 採算性を 무시한 低價판매의 방지 ③ 지나친 廣告 등의 適正化 ④ 과도한 인센티브 供與에 따른 注油所의 移動(元売会社 系列변경) 권유의 자제 ⑤ 品質確保 등의 다섯가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中間報告書에는 轉廢業者에 대한 자금원조제도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資源에너지庁의 柴田장관은 「현실적으로 店舗의 집중도가 높은 都心の 일부 등에서는 地價가 높아서 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동기가 유발되고 있으며, 원래 立地條件이 좋은 관계로 앞으로도 都心部를 중심으로 이러한 동기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아 通産省으로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經營의 多角化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新技術의 적극적인 도입에 의한 情報化의 진전, 즉 道路情報 및 호텔·여관의 예약, 氣象정보 등의 제공등 일련의 서어비스업무에의 진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売出額의 80% 이상이 石油제품과 自動車관련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需要가 한계에 달하면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売出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投売戰으로 인하여 業界의 체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카르텔 형성 및 제품가격의 인상으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輿論에 대해서도, 제품가격의 부당한 인가가 계속되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不利益으로 된다는 사실도 이해하여 균형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중간보고서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事業轉換, 경영다각화, 情報化의 추진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